

한국 사서직에 대하여

Librarianship as a Profession in Korea

김 용 근(Yong-Gun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2. 교육제도 |
| II. 한국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 | 3. 문헌정보학 연구 |
| III. 한국 사서직의 전문성 제고 방안 | 4. 사서직 단체의 활동 |
| 1. 사서직 자격제도 | IV. 결 론 |

초 록

이 연구는 한국 사서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찾으려고 시도되었다. 외형적으로는 사서직이 전문직으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오래 동안 논의되어 온 사서직 자격제도, 교육제도 등도 다시 고찰한다. 사서직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문헌정보학 연구와 사서들의 의지가 모이는 전문직 단체의 활동은 전문성 확보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논의한다.

주제어: 사서직, 전문성, 자격제도, 교육제도, 전문직 단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strategies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librarianship in Korea.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conditions of librarianship as a profession have been formalized but lack in fulfilling the standards required to be recognized as a profession. This research tries to examine the qualifications of and the educational system for librarians. It also traces how the researches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activities of the library association and professional communities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librarianship.

Key Words: Librarianship, Profession, Professionalism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ygkim@cu.ac.kr)

• 접수일: 2005년 2월 20일 • 최초심사일: 2005년 2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5년 3월 4일

I. 서론

아직도 사서직의 전문성을 말하고 있는가 하고 반문하면서 사서직 직업윤리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¹⁾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의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사실 많지 않았다. 다만 오랜 세월에 걸쳐 말하였을 뿐이다. 지금도 우리는 사회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까닭에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겹쳐져있기 때문이다.

여러 종류의 도서관이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장서량이 증가되고 도서관 건물이 새롭게 단장 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법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서직의 전문성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후퇴하는 느낌이 든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기술의 활용으로 마치 실물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없어질 것처럼 하면서 전통적인 사서의 역할이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 등은 사서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힘을 빼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사서직이 과연 전문직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지에 대한 의심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만 생기는 게 아니다. 사서직에 대한 푸대접은 오랜 시간 관행과도 같이 되어온 도서관에서의 사서직 운영체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도서관 내부에 깊숙이 박혀있는 불합리한 조직구조는 그대로 두고, 사서직을 위협하는 외부의 충격이 있으면 그 때 잠시 분통을 터뜨리다가 곧 조용해지고 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에 위협을 가하는 명칭변경이나 민간위탁을 성취시키기 위한 움직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명칭변경의 추진에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평생교육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의도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제기될 문제는 이들 변경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논리보다는 훨씬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공공도서관 일부 업무를 아웃소싱 하거나 민간위탁에 의한 경영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 논의를 중단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서직의 전문성과 관련되어 일어난 것이다. 그 중에서 사서직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전문직이라고 하는 의사와 변호사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는 지적일 것이다.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 하면 준사서로,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면 정사서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사서직이 다른 전문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얻게 되어 사서들의 전문지식

1) 우리는 사서직의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의 지적과 해법은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실천과 행동은 주춧하다. 이것은 도서관과 사서직의 철학과 사상, 직업윤리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기문, "사서의 전문성,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도서관운동, 제5권, 제2호(1999, 6), pp.5-7.

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사서의 사회적 위상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또한 사서직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사서직급에 관련된 문제도 있다. 우리는 사서의 직급을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도서관에서 사서직이 수행하는 업무는 이 전문자격증과는 무관하게 배당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은 공무원 직급에 따라 채용하고 있어 사서직의 전문성은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이다.

도서관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정부부처에서 발표하는 '도서관발전방안'에는 매년 기존의 틀에다 약간의 변화를 주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더구나 이 정책들이 실행되기에는 처음부터 의심이 드는 내용들이 많다. 또한 그러한 정책에서의 사서 인력의 충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얻는 이른바 대체 인력으로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사서직의 전문성이 정부부처로 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사서직의 인력 양성을 해두고는 활용할 단계에서는 자격제도와는 무관하게 인력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논문에서나 현장 사서들의 모임에서 사서직에 관련된 논의는 언제나 '21세기 사서직', '디지털 시대의 사서직', '인터넷 환경에서의 사서직' 따위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더 나아가 미래의 정보전문직이 되려면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는지를 선진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고안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한다. 미래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사서직이 처한 형편을 개선시킬 방안을 먼저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사서직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너무 안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실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남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재단해가지고는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꾸만 실패한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들이 처방하고 있는 여러 묘약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사서직의 전문성 제고'에는 크게 효험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서직의 위상이 낮게 인식되고 있는 데는 제도적인 문제, 교육의 문제, 연구의 문제 등에서 그 요인을 찾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가 가장 많다. 그러나 문헌정보학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도 다른 연구주제와 같이 연구자 개인의 관심사항에서 출발하여 연구가 수행되고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연구 성과는 연구자 개인의 연구 업적으로만 남게 되고 그것이 문헌정보학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의 보탬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연구 결과의 활용은 독자들의 몫이라고 하지만, 사서직 제도에 관한 문제나 문헌정보학 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개인 연구자의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학회나 사서직 단체에서 여러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결과도 공청회를 통하여 발표, 토론되고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이 정부기관에 제출되게 하는 형식이 필요하다.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사서직 전문성 제고'에 대한 관심은 주로 연구 활동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이 한국 문헌정보학을 위하여 보탬이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면 현장 사서진은 '사서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장의 사서들은 지침에 따라 그들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그게 곧 전문성을 높이는 일이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적극적으로 여러 매체에 사서 개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거나 전문직 단체를 통하여 여러 종류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매일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 항상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사서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과제는 국가의 정책이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지만, 강단과 현장은 개별적인 활동 보다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하여야 될 것이다. 우리가 '사서직의 전문성 제고'를 말하면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

II. 한국 사서직의 전문성에 관한 논의

우리 사회에서 사서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논문은 사실 많지 않다.²⁾ 오랜 시간 사서직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려는 노력이 이어져 오기는 했지만, 강도 높게 토론하며 도서관계와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주로 교육과정의 연구를 하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과과정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서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모색'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을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각 논문에서 우리 사회에서의 사서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내놓고 있는 진단과 처방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문화가 발전하는데 장애요소는 무엇이며,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우리와는 도서관문화의 사정이 많이 다른 선진국들이 보여주는 '사서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략'은 아주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참고하지 않았다.

여러 논문들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사서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이다. 전문성 확보에 저해요소는 무엇이며,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는 논문들이다. 현장 사서들로부터 설문지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사서직이 전문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사서직이 전문직으로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찰하고 있는 연구이다.³⁾ 현장 사서들은 전문직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다. 응답이 많은 항목의 순으로 나열한다. ①이용자들의 도서관 사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② 도서관협회의 활동이 부족하다. ③시험제도 없이 자격이 부여되

2) 1967년부터 2002년까지 생산된 문헌정보학 연구논문 2271편 중에서 문헌정보학 이론 50편, 문헌정보학 교육 71편, 사서직과 전문직 39편이다. 손정표,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3호(2003, 9), pp.9-32.

3) 엄영애, "사서직의 전문직 요건과 수행업무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2004, 9), pp.159-175.

고 있다. ④계속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다. ⑤사서직의 채용 및 승진제도에 문제가 있다. ⑥법이 정한 자격요건이 불충분하다. 그러나 '사서들의 봉사정신이 부족하다', '사서직의 윤리의식이 부족하다', '도서관의 봉사기능이 부족하다'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응답이 많다.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도서관협회의 활동 강화, 사서직 교육의 전문화, 도서관과 사서직에 대한 홍보 및 이용자 교육, 계속교육의 확대, 사서직의 자격요건의 강화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행된 "도서관 전문성 강화 방안-사서 전문성을 중심으로" 라는 연구보고서를 살펴본다.⁴⁾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사서자격 제도를 자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의 환경 변화에 도서관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 시대의 도서관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도서관을 운영할 사서는 어떤 능력의 소유자이어야 하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결론으로 첫째, 사서 자격 제도의 개선 둘째, 재교육 및 계속교육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서 자격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전공이수 최소학점을 높이고, 대학 졸업 후 추가 교육과정을 마치게 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사서자격 구분에서도 주제별, 영역별 등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직과 준 전문직의 업무 구분과 사서직이 속하는 일반행정직군에서 전문직군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교육 기관으로 도서관 관련 단체, 사서 단체, 대학, 학회 등에서 다양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내용에서도 현장 업무와 연계되게 설계되고 원격교육체계 구축과 지역 대표도서관의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서에게 부과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직화의 수준을 사회적, 교육적 및 조직구조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 연구결과를 고찰 한다.⁵⁾ 사서직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정체성, 지식과 기술, 윤리성, 자율성 등이 특히 관련이 크다고 보고 이들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서직의 전문직화는 조직구조, 비전문직 관장 및 관료제도 등과 사서 개인의 지식과 학습 그리고 교육적 측면의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사서직의 전문성을 논하면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를 찾아내고자 노력하면서도 '무엇을 잘못하였는지'에 대하여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반성 위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살펴본다.⁶⁾ 우리 사회는 사서직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사서들은 사서직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사서직이 우리 사회에서 전문직이 되려면 무엇이 문제이며 또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사서직의 지식 기반, 교육제도, 자격제도, 개혁의지 등이 '건강한가'라고 질문하면서 각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다.

사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사서의 전문영역 확대, 사서의 활동무대 확장, 사서양성 교육·훈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논문의 검토이다.⁷⁾ 사서들이 전문영역의 확대를 위해

4) 김세훈 등, "도서관 전문성 강화 방안-사서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4, 2).

5) 박인웅, "한국 사서직의 전문직화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25집(1996, 12), pp.207-223.

6) 이계환, "전문직 이론을 통해 본 사서직의 전문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2003, 6), pp.57-87.

서는 도서관의 운영, 매체에 대한 이해, 행정기술 등은 물론 지적재산권, 지식격차 등 지식과 정보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흐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사서의 활동무대 확장을 위해서는 시대의 중심과제에 전문가로서 사회조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사서양성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도서관 철학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서 개인적 능력개발이 요구되며, 글쓰기를 통하여 도서관과 사서 개인의 전문성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서직의 전문성 기준을 논의하고 있는 연구결과를 검토하기로 한다. 다른 나라에서 사서직이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제시하고 있는 사서직의 요건들을 고찰하고 있는 연구논문이다. '사서직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준들은 나라마다 거의 비슷하다. 다만 도서관의 유형에 따라 요구하는 사서의 자질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정보 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태도를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의 관리자와 평생사서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전문직의 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한 논문을 검토한다.⁸⁾ 도서관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중요도 측정에서 경영능력(정보환경과 변화요인 분석, 전략적 계획 수립)이 가장 높고, 정보기술 능력(도서관·정보센터 자동화 설계 및 구축,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검색, 인터넷 활용 서비스)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보환경과 변화요인 분석, 전략적 계획 수립,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이용자 정보요구 및 정보행태 분석, 인터넷 활용 서비스 등에 대한 이해와 처리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외국의 여러 전문도서관협회에서 제시한 정보전문가 소양기준을 비교하고 정보전문가로서 사서가 갖추어야 할 기술, 지식 및 가치관의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하고 있는 논문을 검토한다.⁹⁾ 정보자료, 기술 및 접근에 대한 훈련, 경험, 지식이 요구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의 여러 단체가 제시한 소양의 공통적 요소로는 정보자원, 정보기술, 이용자 요구 분석과 이해,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리더쉽 등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참사서가 되려면 자질, 이론, 계속학습, 전문직 단체, 윤리와 수월성, 인성, 가치 등을 가져야 한다는 리뷰논문이 있다.¹⁰⁾ 여기에 나열하는 특성의 전개 순서는 참사서가 되어가는 과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였고, '가치'는 '이론'과 나란히 우선적으로 전개해야 하나, 기성 사서조차 자신의 정체성과 사서직의 가치에 대해 회의를 가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참사서가 되어가는 마지막 과정으로 전개하였다는 설명이다.

사서직이 우리 사회에서 전문직으로서 위상을 확보하려면 직업윤리와 윤리강령을 만들고 그것

7) 이용훈, "사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 도서관, 제57권, 제1호(2002, 봄호), pp.17-36.
8) 홍현진, "21세기 정보전문직의 역할과 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3호(2000, 9), pp.277-298.
9) 윤정옥, "정보 전문가 소양 기준에 관한 연구," 도서관, 제57권, 제4호(2002, 겨울호), pp.41-62.
10) 이병목, "참사서가 되려면," 도서관문화, 제45권, 제9호(2004, 9), pp.46-67. 이병목교수는 "우리들의 도서관-오늘과 내일"에서도 사서의 자질에 대하여 제언하고 있다. 도서관문화, 제44권, 제4호(2003.7.8), pp.25-41.

에 따라 업무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1997년에 선언된 도서관인 윤리강령으로는 도서관 환경이 변화된 지금에는 적합하지 않다. 윤리강령을 논의하고 있는 논문을 살펴본다.¹¹⁾

미국, 연구, 일본, 한국의 사서직 윤리규정을 조사, 비교하여 우리 사회에 적합한 사서직 윤리규정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 연구가 있다.¹²⁾ 이 제안에는 사서직 윤리규정에 정보윤리와 전문직 윤리로 구분하고 있다. 정보윤리에는 평등한 접근 및 서비스, 검열의 거부, 사생활 보호, 사서의 중립성, 지적자유 보장 등 6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전문직 윤리에는 개인적 이익배제, 전문지식의 계속적 발전 및 노력, 전문직 위상 유지, 전문직 임무와 소속된 기관에 대한 갈등, 동료 및 다른 업자와의 관계, 권리와 복지를 위한 고용조건 확보,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문화 창조에의 공헌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도서관운동연구회에서 “사서의 직업윤리, 윤리적 갈등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란 주제 토론회를 하면서 발표된 논문 “사서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이유”¹³⁾를 살펴본다.

사서들의 직업윤리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을 6가지로 논의하고 있다. 우선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확보하는 문제 둘째, 장서구성에 있어서의 윤리적 문제 셋째,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 넷째, 디지털 시대에서의 기술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다섯째, 도서관 경영의 문제 여섯째,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윤리적 노력이 보장되어야 할 문제 등이라는 지적이다.

Ⅲ. 한국 사서직의 전문성 제고 방안

우리 사회에서 사서직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나 성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새로운 도서관이 세워지고, 장서량이 약간 늘어나고,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기술의 활용으로 도서관의 봉사능력이 조금씩 증가한다는 소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도서관이 공부방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료실은 워드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우리 도서관의 현실이 있다. 어떤 유형의 도서관이거나 그것이 단순히 공간 활용으로만 그치고 있다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의 전문성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사서직의 전문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사서직 내부의 자기 반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서직 자격제도, 교육제도 따위는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 항상 논의되는 요소들이다. 여기에 보태어 사서직의 지적토대가 되는 문헌정보학 연구와 사서들의 의지가 모여지는 사서직 단

11) 일찍이 한 원로 사서는 사서의 역사적 소명의식이 도서관의 운명을 바꾼다고 피력하였다. “사서들이 지니고 있는 스스로의 발전적해요인도 지식과 기능의 면보다는 자질과 인성 또는 사상과 철학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기초적 인격의 면이 문제로서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지적한다. 조원호, “도서관과 도서관인 윤리,” 동대문도서관보, 제7호(1978-79), pp.24-30.

12) 김혜경, 남태우, “한국의 사서직 윤리규정 방향 제안,” 정보관리학회지, 제21권, 제4호(2004, 12), pp.329-352.

13) 이용훈, “사서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이유,” 제14회 도서관운동연구회 정기토론회 발제자료, [2003.11.22].

체의 전문성 확대를 위한 활동을 검토한다.

1. 사서직 자격 제도

먼저 사서자격제도에 관한 논의에서 현재 우리의 형편을 잘 표현하고 있는 도서관운동가의 말을 들어 본다.

“말 많고 탈 많은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어느 정도 공식화되는 것에 계기를 부여한 것은 학부제로 졸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문제였다. 전공학점이 학과일 때보다 거의 반으로 줄었는데, 학과 졸업생과 같은 2급정사서 자격을 줄 수 있느냐. 전문대학 학생들과 형평성이 없다. 학부제로 인해 학과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라도 기존과 같이 부여해야 한다. 사서직의 집단을 구성하는 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¹⁴⁾

사서 자격 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은 주로 우리 사회의 다른 전문직에서 볼 수 있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실시와 교육과정이 지금보다 길어야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서직 자격 제도에 관련하여 조사된 여러 보고에서 현행 자격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 현직 사서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 이유로는 우리 사회의 다른 전문직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과 같이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 없이 교육과정을 마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자격 제도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반응이다.¹⁵⁾ 또한 자격증의 등급을 3단계로 나누고 있지만, 도서관에서의 직급이나 직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서자격은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면 누구든지 준사서 또는 정사서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우리 사회의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여 교육기간도 짧고 또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도 거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대학의 학부제 실시로 전공이수 최소학점이 줄게 되어 실제로 이수하는 학점수가 적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문헌정보학 교과목 30학점만 이수하면 누구나 사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학에서 30학점이라면 3학점 10과목만 이수하면 되므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사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전문성을 인정받는 전문직이면서

14) 이해연, “사서자격제도 개선 논의 경과 및 개선방안,” 사서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 [2000.6.19]. 이 개선방안에는 자격부여 방법, 자격구분, 자격관리, 자격에 대한 보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주제발표는 구분영, “국내의 사서교육과정 변화 양상과 개선 내용”이다. 이 토론회는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전국전문대학문헌정보교육협의회 등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5) 이제환, 전계논문, pp.79-82. 시험제도의 필요성을 여러 관점에서 논의하면서 특히 시험제도는 ‘사서직의 직업적 권위를 제고하는데 기여한다’는 지적이다. 엄영애, 전계논문, pp.168-169. 설문지의 문항 ‘사서직 자격시험 제도의 도입’에 많은 사서들이 동의하고 있다. ‘도서관운동연구회’에서는 ‘사서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 결과 사서자격 시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해연, 전계 논문, p.42.

30학점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서자격 제도 개선을 통한 전문성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는 앞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두 가지 요소와 재교육의 충실한 실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다.

여타 전문직에서 볼 수 있는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아주 많다. 물론 자격시험이 반드시 전문성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¹⁶⁾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전문직 자격 제도의 시행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시험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사서채용 시험에서 자질이 우수한 사람들을 간부급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행정고시에 '사서고시'를 실시할 것과 사서직 공무원의 채용시험 과목에서 사서직에 필요한 과목의 추가와 일반 행정직에서 요구되는 과목의 삭제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사서자격 시험제도의 주장은 현재 사서자격 취득 방법이 사서자격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체계로 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는 전문성의 고려 없이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을 적용하여 채용되고 교육훈련도 실시되고 있다. 공무원 직급이 낮으면 1급 정사서라도 준사서의 부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¹⁷⁾

사서자격 시험제도의 도입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에 있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시험제도는 오늘날 별다른 효용성을 갖지 못한 자격증 제도와 시험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제도를 위한 제도로 존재할 가능성과, 사서의 전문성은 시험을 통해 인증되기 보다는 사서 양성교육의 수준제고나 계속교육의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견해도 있다.

사서의 전문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대학에서의 전공이수 학점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¹⁸⁾

사서직의 전문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는 사서 재교육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대학교육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았더라도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도서관 환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도서관 봉사에 반영시키려면 충실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다.¹⁹⁾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 재교육 과정과 일부 기관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나 재교육 기회가 적고, 재교육 기관의 부족, 재교육 프로그램의 빈약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16) 이용훈, 전계논문, p.33. '지식과 정보의 대중화로 사회 전반의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서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세훈 등, 전계논문, p.128. 시험제도는 '제도를 위한 제도'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7) 이용훈, 전계논문, p.34. '최소한 도서관 현장에서는 사서자격의 등급에 따라 상하위 자격등급의 역전현상이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라는 지적이다.

18) 김세훈 등, 전계논문, pp.128-129. 소정의 과정이란 졸업 후에, 다시 정해진 문헌정보학 과목을 수강한다는 것이다.

19) 사서직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많다. 논의는 주로 재교육 기관 다양화,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 프로그램 개선, 원격교육 시행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도서관 관련 학회,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되어있는 대학 등에서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하여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은 가능하면 봉사영역별, 주제별, 직급별 구분을 하고 그것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전개시켜야 할 것이다.

원격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사서들이 지역이나 시간에 구애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의 논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소수의 사서들이 근무하는 도서관에서 재교육을 목적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되는 염려를 덜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서자격제도 개선안은 자격제도의 유형도 정해야 하지만, 사서직의 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사서직의 정체성, 신규자격부여와 자격유지관리 등의 내용도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²⁰⁾ 이 방안에서는 사서자격제도 유형으로 시험제도가 가장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자격 검정 내용으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사서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할 수 있는 과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서직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서직의 권익 향상, 낮은 수준의 사회적 인식, 부당한 처우 등은 단체 활동을 통하여 개선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행된 '사서직제 개선방안 연구'²¹⁾가 있다. 직제 개선은 사서직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사서직제 개선방안으로 (1안) 현행 직제를 유지하되, 사서직급을 상향 조정 (2안) 사서직렬을 격상시켜 사서직군화 (3안) 기록문화직군의 신설을 통한 독립 직군화 (4안) 사서직을 학예직군에 편입시켜 연구직화 (5안) 사서직의 자격증을 기준으로 복수 직군화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제 3안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제안하였다.

사서자격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도서관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펼쳐야 할 사업이다. 개인 연구자의 아이디어에서 생산된 어떤 이론으로는 부족하다. 공동으로 수행된 하나의 방안이 제시되면 수차례의 세미나 또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마지막으로 정부부처에 건의하는 형식을 밟을 필요가 있다. 물론 개인 연구자들이 연구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는 있다. 우리의 사서직의 전문성 문제는 우리 사회 사서직이 해결하여야 할 가장 시급하면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논의는 아주 간헐적으로 그것도 소수의 인원이 모여 일회성 행사를 치루고 있는 실정이다.

2. 교육제도

문헌정보학 교육제도에 관련된 문제는 교육체계와 교육내용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연구가 개별 연구자의 수준에서는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회나 전문직 단

20) 이해연, 전개 논문, p.48.

21) 윤희윤 등, "사서직제 개선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2004, 12). 이 내용은 제42회 전국도서관대회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다. 2004.10.15, 부산전시컨벤션센터 공청회.

체에서 교육제도를 논의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²²⁾ 그것도 주로 교육과정에 관련된 논의가 많고, 교육체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서자격이 주어지는 교육과정은 1년 과정의 사서교육원, 2년 과정의 전문대학, 4년 과정의 대학, 6년 과정의 대학원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각 과정마다 약간씩 다른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은 유능한 사서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느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사서'가 되는 것이다. 현장 도서관의 수요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공급의 과잉은 오래 전부터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계약직, 임시직으로 밖에는 취업할 수 없는 사정이다.²³⁾ 도서관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학부제 시행 이전에는 사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문헌정보학 전공 최소이수학점이 60-70학점이었으나, 학부제 실시 이후에는 2개 전공을 이수할 경우는 30-36학점을 이수하면 사서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사서직의 전문성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먼저, 전공이수와 관련된 최소학점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2년제 대학에서의 전공이수 학점이 4년제 대학에서의 문헌정보학 학위 취득 학점보다 낮게 되어 있다. 다음으로 사서자격증의 전문성이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사서자격증은 문헌정보학을 이수하고 다시 소정의 과정을 거쳐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졸업 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겠다는 것은 사서로서의 전문성을 확대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²⁴⁾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되고 있는 강좌에는 IFLA, ALA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사서직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 문헌정보학의 철학, 이념, 사서직의 사상, 윤리 등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²⁵⁾

또한 기술중심으로 구성된 교과과정을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하면서 사서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문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핵심 교과목을 전공필수로 지정하지 않고 선택으로 하는데, 사서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도서관 실무에 종사하게 된다. 사서직의 전문성에 손상을 입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²⁶⁾

22) 문헌정보학 교육제도에 관한 학회 차원에서의 논의는 다음의 논문에서 정리하고 있다. 김용근, "한국 사서직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4호(2002, 12), pp.283-306.

23) 사서직의 취업현황은 여러 형태의 자료로 발표되고 있다. 김성숙,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사회진출동향에 관한 연구," 도서관, 제58권, 제2호(2002, 여름), pp.39-62. 전창호, "도서관 사서직 자격 취업가이드," 디지털도서관, 제18호(2000, 6), pp.10-40. 사서e마을: 사서직 취업 커뮤니티, <www.librarian.co.kr> "2004년 사서 정규직 채용공고의 관중별, 지역별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24) 김세훈 등, 전계 보고서, p.129.

25) 이미화, "사서직 교육기관 조사: 4년제 과정을 중심으로," 시민과 도서관, 제2권, 제4호(2001, 12), pp.1-57. 이 연구는 도서관 현장 사서가 문헌정보학 교육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육제도에 대하여 많은 개별 연구자들의 우려가 있음에도 학부제 이후에 교육과정에 관한 학계 차원의 논의는 단 한번 있었다.²⁷⁾ 우리 학문분야에 학회가 여럿 있음에도 말이다.

3. 문헌정보학 연구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는 한국의 도서관계와 학계의 지적 기반이 되어 연구자에게는 새로운 연구 주제의 수행과정에 선행연구로서 도움을 줄 것이며, 현장 사서들에게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자는 기존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수행을 하는 것이다.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주제는 현재 우리 사회의 도서관 현장과 정보유통 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선택하고, 연구방법의 사용에 있어서도 우리 도서관의 문제를 가장 잘 알아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의 제시에 있어서도 연구자뿐 아니라 현장의 사서들이 이해하고 업무에 응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연구결과는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게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²⁸⁾

문헌정보학 분야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도서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생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현상을 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연구자의 체험과 글이 겹도는, 말과 글이 따로 노는 이중적인 지적 놀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겹도는 구조에서 발표된 글들은 도서관 현장을 변형시키는 데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장과 학계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²⁹⁾

문헌정보학의 현실적합성과 적실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된다. 한국 도서관 현실을 간과하고 외국에서 개발된 이론을 근거로 우리 도서관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우리의 도서관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따라서 한국 도서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생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지적의 일부분을 옮겨 본다.

26) 다음은 현장 사서가 표시하는 '우려'와 '방안'이다. "사서직은 과연 전문직인가", 열린도서관 동호회의 '도서관 이야기' 글 번호 323, 2004.11.13. "사서보다 도서관 업무를 더 잘 안다", 열린도서관 동호회의 '도서관 이야기' 글 번호 320, 2004.10.7.

27) 1996년도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에서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학부제 교과과정을 소개하였다. 1996.6.21-22, 대전 유성호텔.

28) 여기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에서 자세하게 전개하고 있다. 김영기,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실적합성과 실천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4권, 제2호(2000, 6), pp.191-209.

29) 김정근, "한국문헌정보학의 위상정립과 교수협의회 역할: 우리학문의 실천성 문제와 관련하여," 1996년도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 발표요지, (1996.6.21-22: 유성호텔), p.10.

너무 오랫동안 남들의 지식을 수입하는 데만 급급해 온 잘못된 관습을 청산하고, 이 나라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이론을 스스로 창조하면서 세계문헌정보학의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는 역사적인 전환의 시발점을 마련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³⁰⁾

한국 도서관 현장에서의 정보봉사의 기초가 되는 적합한 이론의 생산은 문헌정보학 연구자인 교수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되나 이들이 생산하고 있는 연구결과는 우리의 현장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다시 그러한 지적을 살펴본다.

문헌정보학은 학문성보다 현실성이 높은 학문이므로 한국의 문헌정보학자들은 한국의 도서관봉사에 기여하는 연구를 하여야 하며, 한국의 도서관봉사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것은 지적기반의 부족이며, 이들 지적기반을 제공하는 일은 문헌정보학 연구자, 주로 문헌정보학 교수들의 몫이다.³¹⁾

도서관 현장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미나 등을 열어 현장 사서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운동을 펼치는 한 사서의 외침을 들어보자.

문헌정보학이 고인 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의 고민과 현장의 실태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의 문헌정보학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강단을 떠올리면 듀이와 더불어 미국의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이 더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고 수업의 내용도 거의 전부가 한국 현실에 대한 이해와 현장을 개발하기 위한 수업보다는 유학 당시 배워왔던 내용에 대한 재탕과 더불어 고고한 교수집단의 특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³²⁾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실천성이 없음에 대해서도 나무라는 소리가 많다. 도서관 현장에 어려움이 닥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여 단편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질타도 있다.

비단 학교도서관 문제뿐만 아니라 도서관계 전반에 걸쳐 교수들의 목소리나 활동을 찾아 보기가 힘이 듭니다. ... 학교도서관이 지금처럼 논쟁에 휩싸이고 같은 식구끼리 상처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학교도서관이 진일보 할 수 없게 만든 일차적인 내부 책임은 문헌정보 학과 교수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의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교수님들이 뒷집만 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수들은 내부적으로는 학교도서관의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이에 적합한 커리큘럼을 개설하여 인재를 양성해야 할

30) 최성진,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 창사이춘회교수정년기념논총(1993), p.82.

31) 최성진, "광복 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1995), p.7.

32) 이해연, "문헌정보학의 실천성에 대하여," 문헌정보학 어떻게 할 것인가, 전공학회 교안모임, (1997), pp.11-12.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사회주도권자들에게 심어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³³⁾

정보유통 과정에서나 도서관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어떤 특정 도서관에서만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라 어느 도서관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자료를 포함한 자료에 관한 문제, 정보봉사 과정에서 생기는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문제, 사서 인력에 관련된 문제 등이 그러한 주제가 될 것이다.

학회지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 수록되는 논문들은 주로 연구자 자신의 관심주제를 연구한 내용이다. 문헌정보학 교육문제나 사서직의 전문성 또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도서관계나 학계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으므로 연구자 개인의 노력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학회나 협회 차원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연구결과의 배포에 있어서도 학회지 등에 게재만 할 것이 아니라 공개 토론과 논의를 거치고 정부정책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면 요약하여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학회의 학술발표회 때 대 주제를 발제자가 발표하고 소주제를 여러 연구자가 분담하여 연구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³⁴⁾ 그러나 이 때 논의되고 있는 주제가 현단계 우리 도서관에서 절실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되는지도 의문이다. 학회지에 수록되는 여러 연구자의 논문들은 연구자 개인의 관심주제일 수 있어도 학술발표회에서의 발표주제는 적어도 학계와 도서관계가 공통적으로 논의를 필요로 하는 주제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사서직 단체의 활동

도서관계의 전문직 단체로 우리 사회에 대하여 가장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규모도 가장 큰 조직이 한국도서관협회이다. 협회의 주요사업인 도서관 발전 및 사서직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 도서관 정책 기초자료 발간과 보급, 사서직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현장과 학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세미나 또는 강좌를 열기도 한다.³⁵⁾ 매년 9월에 열리는 '전국도서관대회'는 도서관계와 학계의 다른 어떤 모임보다 가장 많은 연구주제가 발표되고 또한 참석자 수도 많다. 이 대회에서는

33) "문헌정보학 교수님들은 무엇을 했는가" 도메리 글 번호 15783, 2004.10.8.,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회와 문헌정보학 분야 6개 학회가 공동으로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성명서"를 2004.11.에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4가지 기본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3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와 한국비블리아학회에서는 학술발표회에서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다. 전국도서관대회에서도 대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04년 대회에서는 "지방분권과 자율의 시대를 선도하는 도서관"이 대주제이다.

35) "사서수당 현실화", "주5일 근무제" 등을 정부 당국에 건의하기 위하여 열리는 토론회 등을 말한다.

공모주제의 발표와 함께 관종별 또는 주제별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보처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 전시되고 있는 기술전시장도 볼 수 있다.

‘전국도서관대회’에서 ‘한국 도서관의 기본’에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매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사서직 자격제도’, ‘사서직 교육제도’, ‘도서관업무 아웃소싱’ 등에 대하여 공동 연구자들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지정토론자와 참석자들이 충분히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발표형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³⁶⁾ 이 대회에는 우선 가장 많은 도서관인들이 참석하고 또한 ‘한국도서관의 기본’을 말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도서관인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될 것이며,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매년 발표주제의 다양성과 방대한 발표논문의 숫자에서는 일정 수준을 넘고 있으나, 주제의 선정과 발표형식에서는 변화가 있어야 그 효과가 증대될 것이다.

1995년 ‘전국도서관대회’의 주제는 ‘광복 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 이었다. 물론 광복 50년을 기념하는 대회이기는 하지만 이 때 다루어진 발표주제와 같이 한국 도서관과 사서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공모과제로 하고 토론중심의 발표를 전개시킬 필요가 있다.³⁷⁾ 학회의 여러 모임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제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는 연구자인 교수들만의 모임으로 그칠 수 있는 것이다.

대학도서관 사서직의 협의회인 ‘전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와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는 매년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대학도서관 현장의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이 두 협의회에서는 논문집을 간행하고 있다. 세미나의 주제로나 논문집에 수록되는 논문의 주제가 문헌정보학 분야의 교육이나 사서직의 전문성 등을 다루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³⁸⁾ 도서관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많이 두는 사서직이라 사서직 교육이나 제도 등에 보이는 관심보다 도서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각 지역 공공도서관협의회에서도 매년 세미나를 통하여 도서관 현장의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는 아주 다양하다. 어느 것 하나 도서관에서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년에 한 번 열리는 세미나에서 논의될 주제의 선정은 도서관과 사서직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주제로 토론되었으면 한다.³⁹⁾

36) 2004년 대회에서 발표된 “사서직제 개선방안 연구”의 경우는 공모주제의 형식은 아니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용역 사업이다. 이 연구는 ‘한국 도서관의 기본’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37) 제28회(1990.11.15-17) 전국도서관대회의 대회주제는 “변천하는 사회와 도서관문화의 재조명”이고, 세부 주제로 “사서자격제도 이대로 좋은가”, “도서관과 사서명칭”, “도서관정책 이대로 좋은가”, “전문직단체 이대로 좋은가.” 등으로 도서관과 사서직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38) 두 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발표된 논문주제의 영역을 보면 ‘전문직’을 다루고 있는 논문수는 10.6%(35편)이다. 김용근, “대학도서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2호(2003, 6), pp.297-316.

39) 다음은 2004년에 개최된 지역 공공도서관협의회 세미나 주제이다. 서울시 도서관연구회, “웹서비스 발전을 위한 ‘서울디지털센터도서관’ 구축방안,” “서울특별시립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대처방안” [2004.11.15].

지금은 모두 활동을 중지하고 있는 사서직 전문단체의 결성과 활동을 알아본다. 하나는 1990년 5월 2일 도서관문제의 주체인 사서들이 나서서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 및 조직적인 움직임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전국사서협회란 단체가 결성되었다. 도서관정책 소관부서 이관과정에서 사서들이 힘을 합하여 도서관문제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사서의 일터가 더 이상 문외한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도서관이 단지 공부방으로 전락하고 사서들이 서고를 지키는 일에 머무는 현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사서들이 전국사서협회를 결성한 것이다.⁴⁰⁾

전국사서협회 결성 당시에 사서집단을 두고 “이 사회에서 배울 만큼 배운 계층이면서도 자기 주장을 표현할 줄 모르고, 모여서 논의할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모든 걸 만족하지도 않는 특이한 집단이다. 그리고 사서란 직업자체가 정적이고 보수성이⁴¹⁾ 강하며 다소 소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단체 결성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설사 단체가 구성된다고 해도 잘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 시대의 마지막 무풍지대니 이 시대의 마지막 내시”라는 비난이 있었다.⁴²⁾

다른 하나는 1995년 진보적이며 실천적인 도서관운동을 전개하려는 시도로 ‘도서관운동연구회’가 결성된다. 전국사서협회의 활동이 약간 침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단체가 결성되어 도서관현장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집중하였다. 홈페이지에 수록된 인사말을 보면 이 모임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이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서관운동을 벌여나가고자 합니다. 이용자와 사서의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현장 노동자인 사서직과 사용자의 상호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⁴³⁾

도서관운동연구회는 그 활동을 중지할 때까지 “도서관정책의 개선을 위한 제언”, “교육개혁, 삶의 질 향상”, “학교도서관 육성”, “공공도서관 활성화”,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운동”, “경제제일주의 시대에 있어서 도서관의 현실과 실천방안”, “사서자격제도 개선방안”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가지고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정부기관에 제안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시민과 도서관”이라는 기관

: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 “디지털자료와 하이퍼텍스트 활용 DL 및 디지털자료의 활용을 편리하게 하는 제반요소들에 대한 비교분석,”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만족도,” [2004.11.19].; 인천공공도서관 사서연구회,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사서직의 정체성,” “영국공공도서관의 발전과정,” [2004.12.7].; 한밭도서관 개관 15주년 기념 공공도서관 세미나, “21세기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체고 방안,” “지식정보시대 공공도서관의 비전과 수행전략,” [2004.12.1].

40) “전국사서협회 창립대회 인사말씀,” 도서관자료집; (1) 공공도서관 편(신학문사, 1991), p.263.
 41) 사서들이 도서관 개혁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많다. 박동철, “사서의 불만과 권익을 오늘도 내일도 주창만 할 것인가,” 도서관문화, 제45권, 제9호(2004, 9), pp.2-4. 이해연, “보수의 틀에서 벗어난 현장 사서를 기대한다,” 도서관운동, 제2권, 제2호(1996, 6), pp.11-16., 이용훈, “사서의 전문성 강화방안”, p.34, “준비하는 사서”, 열린도서관 동호회의 ‘도서관 이야기’, 글 번호 301, 2004.9.1., “현장 사서의 복지부동”, 열린도서관 동호회의 ‘도서관 이야기’, 글 번호 280, 2004.6.17. 이 글에 대하여 여러 사서들이 댓글을 쓰고 있다.
 42) 정운현, “공공도서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문교부 문화부의 싸움 계기로 본 실태,” 월간중앙, 171호(1990, 4), p.454.
 43) “도서관운동연구회” 인사말. “도서관운동연구회”는 2004. 11부터 활동을 중지하고 있다. 이 연구회에서 간행하던 ‘시민과 도서관’은 2004년 봄호로 중단하고 있다. 지금은 홈페이지까지 폐쇄되고 있다.

지를 2004년 봄호까지 간행하였다.

열린도서관 동호회에서도 사서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도서관의 참 모습을 알리고, 올바른 도서관 환경조성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각종 정보를 폭넓게 수집, 유통시킴으로써 올바른 정보화 사회 구축에 노력하며,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이용자 상호간의 깊은 이해와 정보교류 등을 통해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⁴⁴⁾ 라고 이 동호회의 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활동하므로 거의 모든 의사 표현 활동이 홈페이지에 마련되어있는 다양한 메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회원들이 서로 공감을 하는 의견에는 많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열린도서관 동호회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발송하는 등 우리 사회의 도서관을 위한 노력을 다양한 형식으로 펼치고 있다.

학교도서관 문화운동 네트워크도 학교도서관에 한정된 문화운동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과 기능을 알려 본래의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도서관운동 단체이다.⁴⁵⁾ 이 네트워크 운동의 특징은 먼저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의 운동체이며 둘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하며 셋째, 올바른 독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넷째, 학교도서관은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수차례에 걸쳐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관련된 세미나를 열어, 많은 사서교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은 학교도서관에 한정된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운동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우리 사회의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운동으로 나아간다는 설명이다.

우리 분야에 존재하는 모든 단체들이 우리 사회 도서관에 관련된 문제를 끊임 없이 논의하고 토론한다면 우리도 사회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아, 전문직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V. 결 론

우리 사회의 사서직은 아직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서직이 전문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외형적 조건들은 겨우 갖추고 있다. 사서자격 제도, 교육제도, 전문직 단체의 구성, 사서윤리 강령의 제정 등 제도와 형식만 구비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우리 사회로부터 전문직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전문직임을 인정하는 제도와 형식들이 내용적으

44) “열린도서관 동호회 소개 글”이다. “열린도서관 동호회”는 1995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도서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이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서관에 관련된 회원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표출되고 있다. <www.olib.net>

45) 학교도서관 문화운동 네트워크의 홈페이지에서 네트워크 소개의 글. <www.hakdo.net>

로 충분하게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또한 전문직이 되기 위하여 학계와 현장에서는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였는지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다. 한 연구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밝히면서', '무엇을 잘못하였는지'에 대한 반성은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렇다. 가장 기본적인 진단은 전문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요인과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연유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요인을 제거하거나 적어도 감소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남이 만들어둔 제도와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도서관문화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사회에서 생산되고 적용되던 논리를 우리의 환경에 접목시켜 해결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외국의 제도를 크게 변형시키지 않고 거의 그대로 우리의 양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 사회가 사서직의 전문성을 이해하는데 무지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가 도서관과 사서직을 인식하는 정도와 그들이 그렇게 이해하게 된 연유를 찾아,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아주 기본에서부터 '한국 사서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략을 짜내야 한다. 사서 자격 제도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문헌정보학을 이수만 하면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식을 지양하는 제도를 채택할 것인지를 학계와 현장이 다시 심각하게 검토를 하여야 한다. 모든 일이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이 문제는 빨리 해결 될수록 우리 도서관계에는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사서자격 제도에 관한 논의는 연구자 개인의 연구주제로만 등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가장 좋은 방안을 마련하여야 되는 것이다. 정보기술의 범람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도서관환경은 우리 쪽에서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교육제도에서도 1년 과정, 2년 과정, 4년 과정, 6년 과정에서의 교육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그것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적용시켜야 한다. 도서관의 철학과 사상을 이해하여 전문직 사서로서의 신념과 윤리강령을 지킬 수 있게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정보기술의 보급은 사서직을 기능인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다. 주제전문사서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학부에서 실시할 경우, 대학원 과정에서 적용할 경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계와 현장이 함께 깊은 토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술의 활용은 사서의 역할에서 변화된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주제분야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현재 소수의 대학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제담당 사서제에 대하여 전문직단체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제도 분야에 많은 연구논문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주제전문사서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현장 사서들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중요하다. 현행 제도를 과감하게 바꾸어 현장 사서들의 직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재교육

기회가 부족한 문제, 교육과정의 다양화, 교육기관의 확대, 원격교육의 실시 등의 해결로, 교육효과가 도서관 현장에 나타날 수 있게 정교한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사서직의 지적배경이 되는 문헌정보학 연구결과는 과연 우리 도서관 현장을 위하여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다. “한국문헌정보학의 현실 적합성과 실천성”에 관련된 문제이다.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헌정보학 연구는 한국의 도서관과 사서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 연구자는 한국에 도서관이 없다면 그래도 한국에 문헌정보학자가 필요할 것인가라고 질책하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을 것이다. 특히 현장 사서들로부터 문헌정보학 연구결과의 활용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 때 도서관전산화 사업이 도서관 마다 시행되면서도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 성과를 전산화사업에 적용시킨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는 지적이다. 당시 학술지에는 온통 도서관전산화 업무에 대한 해결방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연구자 수가 많아지고 대학에서 연구논문 생산에 대한 독촉으로 매년 학회지에 수록되고 있는 논문 수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많은 논문 중에서 한국 도서관과 문헌정보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또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많다’는 대답을 얻어내기는 역시 어려울 것 같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연구방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우리 도서관 현장에서 제기되는 연구주제와 우리의 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방법과, 연구결과의 제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로 서양에서 만들어진 연구방법으로 우리의 도서관문제의 해결에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자주 사용되는 양적 분석방법은 그 대상에 대하여 질적 내용이 담보되어 있을 때 사용하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와 같이 정교한 프로그램 없이 대충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 업무에다 질적 분석 없이 양적 분석으로만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는 한국 도서관현상을 양적분석으로 짜여진 도표를 보면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서직의 전문성 확보에 저해요소로서 정책의 부재, 우리 사회 정신문화의 빈곤, 사서의 자질 부족 등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 당국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 부족을 나무라고, 이용자인 시민들의 정신적 공황을 비판하고, 사서들의 노력 부족 등을 원망하였다. 그러면서도 학계와 현장이 함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많지 않았다. 물론 이 문제들은 다루기가 쉽지 않다. 누구도 나서서 이 무거운 주제를 연구하고 토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학계도 현장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기를 꺼려하는 것이다. 사실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분야의 전문직 단체가 여럿 있지만, ‘도서관과 사서직의 기본 문제’를 주제로 하는 모임은 많지 않다. 그러면서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과정에서도 현장에서도 도서관의 철학과 사서직의 이념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 현장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자체 세미나를 통하여 해결하고, 그것들을 밖으로 공개하여 우리가 공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역별, 관중별에서 전국 단위의 모임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당국자에게 제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하는데는 연구자, 사서 개인⁴⁶⁾, 개별 도서관, 여러 유형의 전문직 단체 등이 차례로 나서야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K C I

46) 한 사서교사가 신간도서 소개를 하면서 현장 사서 각자는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다. 그 부분을 소개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맥락으로 심어 놓았기에 이 책을 일반인들에게 읽히는 것 자체가 도서관운동이다”, “왜 사서는 허병두를 읽고 시민들에게 허병두를 읽혀야 하는가”, 도매리, 글 번호 16011, [2004.12.10].